금속민투위(8절)_레이아웃 1 14. 09. 23. 오전 2:53 페이지 1

금속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

금속민투위

• 제23-05호
• 발 행 인 : 의장 손 덕 헌
• 발 행 처 : 선전실
• 발 행 일 : 2014년 9월 30일(화)
• 전　　화 : 052)287-6541~2
• 배포확인 : 대의원 김 형 진

현장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노동해방투쟁

‘통상임금 쟁취하겠다’ 더니 꼬리 내렸다
사측에 짓밟힌 실리의 실체! 부결로 심판하자

연초부터 통상임금 쟁취에 모든 걸 걸겠다던 5대 집행부
통상임금 쟁취없이 14투쟁 종결없다며 호언장담했던 것도 뻥이었다
결국 사측에 굴복하는 잠정합의안으로 조합원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이경훈 집행부, 교섭 시작부터 끝까지 농락 당했다

국내 대기업 사내보유금 순위

1위	삼성그룹	182조 4천억원
2위	현대자동차그룹	113조 9천억원
3위	SK그룹	58조 5천억원
4위	LG그룹	49조 6천억원
5위	포스코그룹	44조 5천억원

사측은 단체교섭 시작부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조합원들을 우롱했다. 얼마전 한전부지 입찰 예상금액의 3배나 되는 10조5,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이러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 소급분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소요되는 금액은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측은 끝까지 조합원들의 바람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말았다.

[한전부지 인수에 필요한 실제 금액]

땅값 10조5천5백억 + 기부채납 1조3천억원 + 취득세 8천5백억원 + 공사비 등 추가금액 9조원 = 21조 7천억원

밤 11시 30분까지 진행한 마라톤 교섭! 이것이 실리입니까?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주간연속2교대 8/8조기도입과 조건없는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및 고소고발 철회, 공통적용수당 신설 등 제대로 쟁취한 것은 없다.
올해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잠정합의까지 사측에 끌려 다니는 협상과 협상력 부재로 옴짝달싹도 못했다. 어제(29일)까지 실무협의에서부터 본교섭까지의 과정은 파업을 피해가기 위해 구걸하다시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사측을 압도할 투쟁전략과 전술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사측에 완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

14년 중요 요구안 모두 포기!!!

임금 및 성과급	하락	전문기술인력충원	○
통상임금	X	정비부문 인원충원	X
8/8 조기도입	X	영업직 기본급 100%	X
조건없는 정년연장	X	전문연구직 신설	X
해고자, 손배, 고소고발	X	공통적용수당 신설	X

정몽구 땅 살 돈은 있고 조합원 체불임금 못준다고?

한국지엠의 90배, 쌍용의 3,750배인 9조 이윤! 부결로 자존심을 지켜내자!

사업장	작년 당기순이익	통상임금 적용	적용시기
쌍용	24억	800%->800%	3월 19일
한국GM	1,000억	700%->700%	4월 1일
현대차	8조9천억	?	?

굴욕적인 잠정합의안은 적용시점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임금체계 위원회'에서 이후 논의를 한다고 한다. 여기에 그동안 미지급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몽구 회장의 평생소원이었던 자동차센터를 만들기 위해 21조나 들여서 땅을 사들이면서 조합원에게는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

쟁의권이 있는 지금도 사측이 똥배짱을 부리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위원회에서 무슨 합의를 한단 말인가?
다른 사업장처럼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시해서 몇월 몇일 적용!'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임금체계 위원회로 미루는 것은 적용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연월차수당이나 심야할증 수당 등 기존 수당을 축소하여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형국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법에서 판결한 것보다도 못한 사측의 꼼수에 놀아난 이번 잠정합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기아차와 차별을 없애겠다더니? 차별만 심해져!

기아차 전조합원 개별소송 진행중! 휴일근무 150% → 200%요구 소송까지 진행 중!



지난 9월 3일 쟁대위 속보 11호에서 이경훈 지부장이 밝힌 내용이다. 그러나 기아차지부는 윤갑한 사장조차 교섭자리에서 '무조건 노측이 승소할수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로 법적으로 승소가 확실하다. 즉 기아는 '일할적용'이 되는 것으로 단협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승소하고 있는 휴일특근 200%에 대해 개별소송의 내용을 확장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의 인상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차에는 없는 '퇴직금 누진제'까지 적용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와의 차이는 훨씬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도대체 이경훈 지부장은 기아와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인가?

147억원의 손배가압류, 고소고발, 해고자 복직 하나도 쟁취 못해!

이경훈 집행부 결국 어용 노조의 실체를 드러냈다!



부당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동안 민주노조의 근간인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에는 현장을 사측이 장악하여 현장은 창살 없는 감옥으로 전락할 것이다. 하지만 5대이경훈집행부는 이런 현장과 활동가들의 요구와 부당해고, 손배가압류, 고소고발분쇄대책위동지들의 요구를 사측과 합작으로 대책위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합의를 하였다.
몇 푼의 임금으로 4만7천조합원동지들을 현혹하지만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회시켜야만 한다.
금속민투위 또한 사측에 항복한 5대 이경훈 집행부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며 이번 잠정합의를 반드시 부결시켜 민주노조를 지켜내자!

장기근속 형님들 희롱! 기본급 11% 삭감으로 촉탁직대우 유지하며 무늬만 정규직!

촉탁직에 대한 꼬리표를 떼었다고 하지만 촉탁직의 임금을 그대로 받는다. 실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임금의 13.6%가 삭감된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제기가 많자 2.6%를 인상해준다고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지만 실제는 11%가 삭감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건강상의 결격사유의 문구를 그대로 두고 있어 사실상 조건없는 정년연장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지난 연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연장이 되지않고 강제로 정년을 맞이 한 조합원들이 공장별로 다수 발생하였다.
이런 정년연장제시안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정년연장시 해다마 10~15%로 가량 임금을 깍게되는 사측의 꼼수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직제' 약속한 이경훈 집행부, 남양은 또 버리는 패인가?

2013년 지부선거에서 이경훈 후보는 남양조합원의 최대 숙원인 "조합원범위확대"의 대안으로 '전문연구직제'를 남양의 참연구집행부와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남양의 몰표를 받아서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남양조합원들은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연구직제'를 쟁취하자며, 81% 역대 최고 찬성률로 쟁의를 결의하고, 파업에 동참하였지만 교섭결과는 허무하게도 껍데기 합의안이다. 게다가 이 합의는 이미 한달 전에 합의되었다니, 남양은 일찌감치 버리는 패였던 것이다.
선거 때는 남양을 위한다고 감언이설로 표만 받아가고, 교섭 때는 나몰라라하는 이경훈 집행부! 껍데기 합의안에 남양조합원은 분노한다.
압도적인 부결로 "전문연구직제"를 살려내고, 재협의 하라!